

행함이 있는 믿음 (Faith in Action)

야고보서 2:1-17 (James 2:1-17)

16 세기 초에 일어난 종교개혁(Reformation)은 마틴루터라는 한 천주교 사제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자식의 세속적인 출세를 열망하는 아버지의 강권으로 법학박사과정을 다닙니다. 그런데 루터가 법대에 진학한 지 몇 달 후에 7 월 에어푸르트 근처를 지나는데 강한 벼락이 내리치는 것을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바로 옆에 떨어진 강한 벼락에 의해 루터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때 루터는 기도하며, "수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 주 후 루터는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 수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사고로 칼에 찔려 다리 동맥을 다쳐 거의 죽을 뻔 한 체험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벼락의 충격으로 더욱 수도생활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전통적인 수도생활에 전력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수도 규율을 지키는지, 너무 지켜서 문제가 될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규율을 지켜도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근심에 빠졌습니다. 금식기도를 해도, 1 주일간 철야를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자 신분으로 로마 바티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순례객들이 행하던 대로, 바티칸 교황청의 대 성당의 일명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 불리는 계단에 올라갑니다. 이곳의 28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을 꿇고 기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괴롭게 하는 고행을 해도 아무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로마서의 1 장 17 절을 통해 영적 빛을 얻습니다. 그 말씀은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인간이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죄를 씻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 즉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Justification by Faith)"는 종교개혁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어지는 개신교의 중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서 선한 행위가 쓸모 없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그러나 선한 행위는 그 자체로 훌륭하고 필요
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선한 행위는 꼭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믿음과 선한 행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만
중요하지 선한 행위는 쓸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제적인
선한행위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과 행위는 절대반대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절대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 두가지를 통합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선한 행위가 왜 중요합니까?

우선 선한 행위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선한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라” “하지말라”는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건강해 집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편안하게 삽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어 훔치며 부끄럽게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떳떳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 장에 보면,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너를 해치는

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가게 하겠고, 내가 하늘의 보고, 보석 창고를 열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지만,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애써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헬라어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과녁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활을 정조준 해서 쏘아도 한번을 빗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반도시 한번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만 실패해도 율법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 2:10)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가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 장 11 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Clearly no one who relies on the law is justified before*

God, because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어느누구도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는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지켜 볼려고 애써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실패를 경험해 보아야 비로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마음 한 구석에는 조금만 더 노력해 보면 내가 온전히 선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강풍이 얼마나 세찬지 알려면 바람을 거슬러 걸어올라가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은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계를 느껴야 진짜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로마서 3 장 20 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니*"(For "no human being will be justified in his sight" by deeds prescribed by the law, for through the law comes the knowledge of sin.)라고 말씀합니다.

선한행위는 너무 중요합니다. 선한행위를 통해 복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할 때, 그 때야 비로서 내가 온전히 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때야 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도 온전히 100%

선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신앙인에게 선한 행위는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선한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은 남을 궁핍이 여기는, 즉 불쌍히 여기는 행동(mercy)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1 장에도 보면. 야고보서는 참다운 믿음 또는 경건을 두 가지 차원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 장 27 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앞에 나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히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래로 땅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것이 참 믿음 참 경건이란 말씀입니다.

요즘은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여자가 당당히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는 여자란 남자에게 의존해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다고 하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고아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인간이란 밥보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부모가 없어 사랑을 못받는 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말을 오늘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약한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붙잡히 여기고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 열매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본문에는. 무엇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14 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 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 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에 증거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남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15-16) 말씀합니다.

15 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덤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착한 행동을 통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는 믿음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남을 궁핍이 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궁핍”이란 다른 이의 아픔, 다른이의 외로움, 다른이의 고통을 내가 나의 것으로 느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 안됐다. 불쌍하다!”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아픔에 참여하며 함께 힘쓰는게 궁핍입니다.

누가복음 10 장에 보면 선한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참다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은 채 버려졌습니다.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모두가 유대인이요, 또 성전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식으로 목회자라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둘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거기다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강도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빈다.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중에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냐 반문하십니다. 율법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누가 나에게 이웃입니까?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고를 바꾸어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 즉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장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마도 이 둘은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 없는 율법의 조문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얽매어 정작 생명을 돌보는 더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멀리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누가 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처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혈통을 가진게 참 믿음이 아닙니다. 궁핍의 행위로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궁핍한 마음 대신 무관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과 레위인 처럼 세상을 차별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궁핍이 없는 곳에는 무관심과 차별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는 일에 초대 교회안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절 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종들은 반지를 끼지 못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만 끼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따르면, 일부 교인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 오면 아주 환영을 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알아서 앉으라고 시큰둥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 차별적 태도는 있어서는 안되는 악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영혼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영혼을 똑같이 존귀히 여기는 정신이 실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고,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 물질에 있어서는 가난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가난한 자를 괘시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아부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문둥병자를 차별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8 장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만도 고칠 수 있으신데, 일부러 손을 댁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길을 만나지 못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 일부러 손을 대신 것입니다. 주님은 궁핍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긍휼이 여기고 돕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본문 13 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For judgment will be without mercy to anyone who has shown no mercy;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해 말씀합니다. 17 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So faith by itself, if it has no works, is dead.*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느끼고도, 도전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과 헌신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듣는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선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산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천, 실천, 행동, 행동을 통해 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참 믿음, 능력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기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며,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빛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손길 마다 마음속에 담겨진 믿음의
고백을 살피주시고, 기도의 소원들을 살피 주시옵소서.

/ 주님 저희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이땅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좇으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에게 임하는 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중에 계신 분들 그 마음에 용기와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병자를
치유하셨던 그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저희의 직장과

사업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속에 착한일을 통해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살게 하여 주시옵소서.주일 보다 평일의 삶이 더 경건하고 능력과 은혜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표기도) 주님 오늘도 주님앞에 예배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과 위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영광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주 안에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오며, 여러가지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조차도 세시는 주님, 우리 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살피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믿음의 용기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치유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 민국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독재정권이 깨어지고, 자유와 복음이 북한 땅에서 퍼져나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함께 하시사, 복음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는 지식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커져가도록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인공동체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맘되어 사랑하고 한마음되어 기도하며, 서로를 궁핍이 여기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한인 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와 하나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 이제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받으시고, 이어시는
말씀선포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